

WHITE & CASE

화이트 & 케이스 서울사무소에 강성진 변호사 파트너로 영입

2021년 9월 27일 ... 글로벌 로펌 화이트 & 케이스는 서울사무소에 강성진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하며,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역량을 확대하였다.

화이트 & 케이스 글로벌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스 (Global Project Development and Finance) 그룹 대표인 마크 카스틸로 베르나우스 (Mark Castillo-Bernaus) 파트너 변호사는 “최근 몇 년 동안 저희 로펌은 기존 부문의 강점을 더욱 성장시키고 재생 에너지,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업무 능력을 크게 확장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스 업무를 구축해 왔다. 저희 로펌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스 분야에서 확고한 선도 업체이며 특히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아웃바운드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스 업무와 인바운드 프로젝트 개발 업무에 대한 수요가 많은 한국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.”

레이탐 & 왓킨스(Latham & Watkins)에서 파트너로 화이트 & 케이스로 합류한 강성진 변호사는 국내외 개발자, 스폰서, 프로젝트 회사, 수출 신용 및 민간 업체 대주 기관 관련 자문 등 20년 이상의 다양한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송 금융 및 인수합병 관련 자문 경험도 있다.

화이트 & 케이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EIPAF 및 분쟁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앤드류 클라크 (Andrew Clark) 파트너 변호사는 “강 변호사는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스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고 한국 기업 및 금융 시장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 한국어 원어민이다. 강 변호사의 합류로 인해 한국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이며 한국과 아시아

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약속의 강화함에 혁신적인 재생 에너지와 인프라 관련 자문 업무를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.

화이트 & 케이스의 글로벌 운영위원회의 위원인 도널드 베이커 (Donald Baker) 파트너 변호사 역시 "2020 년 말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스 파트너 변호사인 제이미 프랭클린(Jamie Franklin)과 팀 포르토(Tim Fourteau)의 합류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스폰서, 수출 신용 기관 및 기타 대주들과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다. 강 변호사는 서울오피스 팀에 더욱 큰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. 최근 크리스 플린 (Chris Flynn) 파트너 변호사와 팀 케네디 (Tim Kennedy) 파트너 변호사는 호주 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두하는 팀을 합류하며 화이트 & 케이스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분야의 고객들을 지원하는데 가장 적합한 로펌이다.